

한·미 양국 가족의 부부와 자녀의 생활시간 구조

이 연 속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김 외 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조 희 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학전공 교수)

주 인 속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사)

이 선 형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Zick, Cathleen, D. (Dept. and family and consumer studies, Univ. of Utah 교수)

Lee, Yoon G. (Dept. of Human environment,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Utah State Univ. 조교수)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시간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만, 이를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성이나 연령,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방식이나 타가족원의 특성,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개인이나 가족의 시간 배분방식은 이들의 생활양식과 생활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 나라 국민의 생활양식이나 생활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 나라 국민의 생활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생활문화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 및 시간 배분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자료수집의 어려움 및 이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실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에 이르러서야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시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에서도 대규모의 연구기관에 의해 10년 이상의 간격으로, 캐나다는 6년마다, 일본의 경우 5년마다, 노르웨이의 경우 10년마다 전국적인 규모로 시간조사가 수행되고 있다(Pentland et al., 1999).

한편 각 나라별로 시간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들 자료를 가지고 국가간 비교를 하는 데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표집방법, 생활시간의 분류방법, 코딩체계의 국가간 차이로 인하여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 국제 비교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서구에서는 Szalai(1972)의 12개국에 대한 생활시간 국제비교를 시작으로 해서 두 나라 이상의 생활시간 국제비교 분석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표본 추출된 주민과 시간분류 및 코딩체계가 다른 데서 오는 비교연구의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비교국가간 광범위한 협의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유럽에서는 생활시간 비교연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통계연맹 주관으로 공통의 생활시간 분류항목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유럽통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시간 국제비교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 실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조사방법을 동일하게 한 국가간 비교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한·일간의 생활시간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다. 일본과의 시간비교는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유교적 전통에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 구조상 유사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산업사회의 진입시기나 산업화 정도, 사회규범이나 가치의 차이 등으로 인한 상이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생활습성이나 생활양식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문화권과의 비교 못지 않게 서양문화권에 속한 나라와의 비교도 중요하다. 서양문화권에 속한 나라 중 특히 미국은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시간비교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미국은 기독교적 사상에, 우리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각각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배경 및 역사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 국민의 생활모습은 선진대국인 미국과 유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생활시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두 자녀가 있는 부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조사법을 적용하여 가족 전체, 즉 부부와 두 자녀의 시간배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부인의 취업여부 및 근무형태는 부인 자신의 시간사용이나 가족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인의 근무형태별에 따라 전일제취업주부, 시간제취업주부, 전업주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양국의 생활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첫째, 한·미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 시간, 수입노동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한·미 양국 자녀의 생활시간구조는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 시간, 수입노동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생활시간으로 복수의 국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시기와 1주일 중 휴일의 일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그 특성, 어느 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가간 생활시간의 비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국가를 공동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연구 결과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에 의한 대표적인 연구는 국제비교연구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헝가리 사회학자 Szalai에 의해 실시된 생활시간연구이다. 이는 ‘사회과학 연구와 자료조사를 위한 유럽협력센터(The European Coordination Centre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in Social Sciences)’와 UN의 지원을 받아 1964~1966년에 걸쳐 12개국의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연구로, 처음부터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공동설계 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비교가 용이하였다(Pentland et al. 1999).

그러나 생활시간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의 대부분은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표집방법, 생활시간의 분류방법 및 코딩체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최근의 연구로 이기영 외(2001)에 의한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 핀란드의 4개국의 시간사용을 비교하였는데, 역시 2차 자료의 한계에서 오는 비교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1980년대 중반 ‘생활 및 노동조건에 관한 유럽재단(The European Foundation on Living and Working Condition)’에 의해 설립된 ‘국제생활시간 아카이브(MLTBA-Multinational Time Budget Archives)’가 자료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생활시간 자료를 공통의 분류체계로 재코드화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최근 국가간의 생활시간 공동조사는 특히 “국제생활시간학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수집, 코딩, 제시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생활시간을 통한 생활문화의 비교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럽통계연합(EUROSTAT)에서는 1995~1996년에 유럽 지역의 생활시간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생활행동의 분류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생활시간 비교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제비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통계청에서 실시된 생활시간조사가 발표된 이후 국제비교에 대한 관심과 비교가 한층 더 활발해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비교의 경우 1993년 일본학자에 의해 ‘생활시간의 일·한 비교’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KBS와 일본 NHK에서 1990년 각각 조사된 생활시간자료를 일본에서 비교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한·일 가정학자들이 연구방법을 일치시켜 공동으로 조사하여 시간사용을 비교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Amano et al, 1998; Matsubaguchi et al, 1997; 이기영 외, 1996, 조희금 외, 2000). 그러나 일본과의 비교 연구와는 달리 미국의 생활시간사용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연구는 몹시 부족하여 추가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한편 생활시간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부부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는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즉 자녀는 부모의 생활시간, 특히 어머니의 가사노동시간이나 사회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자녀수, 자녀연령)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드물게 자녀를 주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체 생활시간이 아닌 자녀의 특정 여가시간이나 가사협조 시간에 초점을 맞추거나(Lawrence, Tasker & Babcock, 1983; Sanik & Stafford,

1986; Lawrence, Tasker & Wozniak, 1988), 전체시간에 대한 접근이라 하더라도 편부모 또는 양부모의 가족형태라는 한 변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Douthitt, 1991) 자녀의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몇몇 연구(이정덕, 1991; 도종수·정문성, 1993; 김선희, 1996)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이들의 시간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시간을 분석하였으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녀의 시간을 분석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한·미 양국의 공동연구자들은 각각 자료를 수집한 후 공동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양국 모두 남편과 부인, 자녀2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다. 기타 가족원의 거주는 가족의 시간사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통제를 위해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한국의 경우 서울을 강북, 강서, 강동, 강남의 4대 광역으로 나누어서 인구비례로 표집하였고, 미국의 경우 유타주의 Salt Lake County, Iron County, Washington County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5단계의 층화표집하였다.

한국은 자료수집을 위해 1회의 예비조사와 2회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 사이에, 본조사는 계절에 따른 가족의 시간사용 변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1차는 봄-여름기간인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에, 2차 조사는 같은해 가을-겨울기간인 11월 13일부터 12월 3일에 실시되었다. 총 30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조사에서 총 400부를 배부하여 38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중 응답이 부실한 27부를 제외하고 남편용과 부인용 설문지 각각 353부와 평일의 1,412부의 시간일지표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¹⁾.

미국의 경우도 시간사용의 계절적 변이를 고려하기 위해 1년에 걸쳐 총 210 가족의 설

1) 미국의 휴일 사례수가 평일과 휴일을 분리하여 분석을 하기에는 적어, 평일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지 및 시간일지표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요일에 대해 동일한 수의 일지표를 수집하여 자녀가 방학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을 때의 시간사용이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이중 부실하게 응답한 10가족의 사례를 제외하고 평일의 130부의 설문지와 520부의 시간일지표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양국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대상가정을 총 2회 방문하여 설문지와 시간일지표를 회수하도록 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시간일지표와 남편용, 부인용 설문지로 구성된다. 시간일지표는 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하는데, 설문지에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함께 시간일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한국의 경우 부인용 설문지는 취업주부용과 전업주부용이 나뉘어져있으며, 시간일지표와 설문지는 연구가 완료된 미국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미국의 것을 기초로 우리 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시간일지표는 한국은 15분 단위로, 미국은 10분 단위로 자신이 사용한 시간을 24시간 기록하게 된다. 한국은 평일 중 하루와 휴일 중 하루 총 이들의 시간이, 미국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요일이 동일하게 선정되도록 조사하여, 한국은 4인가족이 각 2매씩 총 8매, 미국은 4인가족이 1매씩 총 4매의 시간일지표를 응답하게 되어 있다. 남편과 부인은 각자 자신의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자녀의 경우 자녀의 응답을 기초로 어머니가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때 자녀가 초등학생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자녀용 시간일지표는 작성하지 않았다. 총 30개로 분류된 생활행동을 중심으로 시간사용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한 번에 여러 활동을 중복해서 한 경우 중점적으로 한 활동만 기입하도록 하였다.

분석을 위한 한·미 양국의 자료는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한 상태로 교환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시간사용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한·미간 시간사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한국				미국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연령	평균(만 세)	39.4세		36.4세		-		-	
교육수준	중등이하	3 (0.8)		9 (2.5)		평균 15.1(년)		평균 14.2(년)	
	고등	157 (44.5)		257 (72.8)					
	전문대	17 (4.8)		15 (4.2)					
	대졸이상	176 (49.9)		72 (20.4)					
	평균	15.1(년)		13.2(년)					
취업형태	전일제	351	(99.4)	98	(27.8)	123	(97.7)	19	(14.6)
	시간제	1	(0.3)	19	(5.4)	7	(2.3)	57	(43.8)
	전업주부	-		236	(66.9)	-		54	(41.5)
	무직	1	(0.3)	-		-		-	
직업	전업주부	-		236	(66.9)	-		54	(41.5)
	판매·서비스·자영	137	(38.8)	76	(21.5)	19	(15.0)	7	(5.4)
	생산·단순노무	45	(12.7)	12	(3.4)	38	(29.9)	34	(26.2)
	사무	151	(42.8)	29	(8.2)	14	(11.0)	26	(20.0)
	전문·기술·행정관리	17	(4.8)	-		55	(43.3)	9	(6.9)
	무직·기타	3	(0.8)	-		1	(0.8)	-	
		남		여		남		여	
자녀	학교급별 초등학교	162(54.9)		133 (45.1)		50(58.8)		35(41.2)	
	중·고등학교	93(50.5)		91 (49.5)		29(51.8)		27(48.2)	
	연령(만 세)	11.3세		11.7세		10.7세		10.8세	

2. 한·미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 비교

한·미 양국 부부의 평일 생활시간을 보면 <표 2>와 같이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집단 간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생리적 시간을 보면 시간제

취업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 부부의 생리적 시간이 미국 부부의 생리적 시간보다 유의하게 길게 나타나고 있다. 생리적 시간 중 수면 및 휴식시간을 보면 미국 가정의 시간제 취업주부가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보다 1시간 6분 길며 그 차이가 유의하다. 그 밖의 집단에서는 양국 부부간에 수면 및 휴식시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수면 및 휴식시간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전업주부가 9시간 3분 정도로 가장 길며, 시간제 취업주부가 8시간 8분으로 가장 짧다. 미국 가정의 경우도 전업주부가 9시간 14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수면 및 휴식시간이 가장 긴데, 시간제 취업주부의 수면 및 휴식시간도 9시간 14분 정도로 전업주부와 같다.

<표 2>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평일 생활시간 비교

(단위 : 시간:분)

생활시간구분		한국(N=353)						미국(N=130)					
		전일제 ¹⁾ (N=98)		시간제 ¹⁾ (N=19)		전업주부 (N=236)		전일제 (N=19)		시간제 (N=57)		전업주부 (N=54)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생리적 시간	수면및휴식	8:43	8:24	8:43	8:08	8:37	9:03	8:46	8:11	8:02	9:14	8:27	9:14
	식사	1:54 ***	1:53 ***	1:58 ***	1:55 ***	2:02 ***	1:54 ***	0:20	0:36	0:41	0:51	0:40	1:02
소계		10:37 ***	10:17 ***	10:41 ***	10:03	10:39 ***	10:57 *	9:05	8:46	8:43	10:05	9:07	10:17
가사노동시간		0:17 **	3:24	0:11 ***	4:42 ***	0:06 ***	7:48	1:43	4:40	2:29	6:48	2:07	8:28
수입 노동 시간	학업	0:07	0:03	0:05	0:0	0:05	0:02	0:29	0:01	0:05	0:12	0:26	0:12
	노동 ²⁾	9:33	8:04	9:50	6:13 ***	9:39 *	0:12	8:07	6:17	8:48	3:17	8:22	0:42
	이동	1:15 **	0:49 *	1:04 **	0:50 ***	1:15 ***	0:01 *	0:42	0:30	0:37	0:16	0:52	0:13
소계		10:55	8:56	10:58 **	7:02 ***	10:59 *	0:15 *	9:18	6:47	9:31	3:45	9:40	1:07
사회·문화적시간		2:12	1:23 *	2:10 *	2:13	2:17	5:00 **	3:27	3:28	3:03	3:04	2:50	3:46
기타시간 ³⁾		-	-	-	-	-	-	0:23	0:15	0:12	0:16	0:13	0:22

*p<.05 **p<.01 ***p<.001

1) 전일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2) 한국의 경우는 근무시간과 부업·직장을 위한 재택시간, 미국의 경우는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것임

3) 한국은 기타시간 항목 없음

한편 미국 가정에서 가장 짧은 수면 및 휴식 시간을 갖는 집단은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으로 그들의 수면 및 휴식시간은 8시간 2분이다. 이는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수면 및 휴식 시간이 8시간 43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길게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한·미 양국 부부의 수면 및 휴식 시간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시간제 취업 부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인이 취업한 경우 전일제든 시간제든 남편의 수면 및 휴식시간이 부인보다 긴 반면, 미국은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에만 남편의 수면시간이 부인보다 길다.

식사시간은 한국 가정의 부부가 미국 가정의 부부에 비하여 모든 집단에서 훨씬 길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국 부부의 생리적 시간의 차이는 식사시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집단별 식사시간의 길이가 2시간 정도로 부부집단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일 근로자 가구 부부의 생활 시간을 조사한 선행연구(이기영 외 3인, 1996)나 통계청(2001)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 조사에서 성인의 평균 식사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난 데 비하여 대체로 긴 수준이다. 이는 이들 연구간에 조사대상자와 조사시기,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식사시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부부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이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한국 부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특히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시간은 미국 Maryland 대학 사회조사 센터에서 실시한 ‘EPA National Time Use Survey 1992~1994’ 조사자료(통계청, 2001)에 나타난 성인 요일 평균 식사시간인 1시간 9분에 비하여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양국 부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모든 집단에서 미국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길며 모든 남편 집단, 그리고 시간제 취업주부에 있어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전업주부로서 7시간 48분이며 취업주부보다 3시간~4시간 30분 정도 길었다. 부인에 비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6~17분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어 8시간 28분이며 이는 전일제 취업주부보다는 3시간 가까이, 시간제 취업주부보다는 1시간 40분 정도 긴 시간이다. 한편 미국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제 취업주부를 둔 남편이 가장 길어 2시간 29분이고 예상외로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장 짧아 1시간 43분이었다.

국가별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양국간에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부인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남편이 미국 남편에 비하여 가사노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다. 즉 한국 남편 중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인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겨우 17분밖에 되지 않는데 비하여 미국 가정의 남편은 가장 짧게 가사노동을 하는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 경우도 1시간 43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가 양국간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인의 경우도 한국 가정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미국 가정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하여 짧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시간제 취업주부만으로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42분인데 비하여 미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6시간 48분으로 그 차이는 2시간을 넘고 있다. 미국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한국의 남편보다 긴 것은 동서양의 문화적 전통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나 미국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한국 부인보다 길게 나타난 것은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에 관한 선행연구(NHK 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 1995; 통계청, 2001)에서 미국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비교국 중 가장 짧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이 연구의 미국측 응답자들이 핵가족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가족관을 갖고 있는 모르몬교도가 70%정도를 차지하는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수입노동시간은 학업, 노동, 이동으로 분류해서 양국 가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노동시간을 보면 전일주부만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한국 가정의 부부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남편의 취업노동시간은 9시간 33분에서 9시간 50분의 분포를 보이는 반면, 미국 남편은 8시간 7분에서 8시간 48분의 분포를 보여 집단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한국 남편의 취업노동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한국 부인의 취업노동시간이 미국의 취업주부보다 각각 1시간 47분, 2시간 56분 길다. 취업노동시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시간제 취업주부와 전일주부 남편인데, 그 중에서도 시간제 취업주부의 취업노동시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취업노동시간은 6시간 13분인데, 미국의 경우는 3시간 17분으로 나타나 한국의 경우가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길다. 전일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한국 남편의 취업노동시간이 미국 남편에 비하여 1시간 17분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 시간은 양국 가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 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업부부만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한국 가정 부부의 이동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한국 가정 부부의 이동시간이 미국 부부보다 10~30여분 가량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표집 대상이 된 서울시가 미국 유타주의 중소 도시에 비하여 지역적으로 크고, 이에 따른 교통 혼잡이 더 큰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이동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 수입노동시간에 있어 양국의 시간제 취업 주부와 남편, 전업주부와 남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가정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비교해 보면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국 가정 부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전일제 취업주부,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 전업주부였다. 한국 전일제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1시간 23분, 미국 부인은 3시간 28분으로 미국 전일제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2시간 이상 길다.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 경우는 한국의 남편이 2시간 10분, 미국의 남편은 3시간 3분으로 약 1시간 가량 미국 남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길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만은 한국 부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미국 부인보다 길며 그 차이는 1시간 14분이다. 한편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 있어 한국은 남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부인보다 50분 정도 긴 데 비해 미국은 부부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한·미 양국 자녀의 생활시간 비교

자녀 중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 자녀만을 대상으로 평일의 시간 사용실태를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하기로 한다.

먼저 <표 3>에서 생활시간을 생리적시간, 가사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크게 분류하여 평균시간을 t-test한 결과를 보면 생리적시간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 자녀와 미국 자녀의 시간사용은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자녀들이 서로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영역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리적 시간에서 수면 및 휴식 시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자녀가 미국 자녀보다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자녀 중 가장 적은 시간을 나타내는 집단은 여자 중·고등학생으로 평일 평균 8시간 22분이고, 가장 많은 집단은 남·여 초등학생으로 9시간 59분이다. 미국

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집단이 남자 중·고등학생으로 8시간 51분이고, 가장 많은 집단은 남자 초등학생으로 10시간 27분이다. 수면 및 휴식에서 한국과 미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여자 중·고등학생으로서 이 두 집단간에는 하루 평균 1시간 3분의 차이를 보인다.

〈표 3〉 자녀의 성별·연령별 평일 생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 분)

생활시간구분		한국				미국			
		남		여		남		여	
		초등 (N=162)	중·고등 (N=93)	초등 (N=133)	중·고등 (N=91)	초등 (N=50)	중·고등 (N=29)	초등 (N=35)	중·고등 (N=27)
생리적 시간	수면 및 휴식	9:59	8:34	9:59	8:22 ***	10:27	8:51	10:21	9:25
	식사	1:52 ***	1:49 ***	1:49 ***	1:48 ***	0:56	0:41	0:56	0:41
소계		11:51	10:23	11:48	10:10	11:23	9:32	11:18	10:41
가사노동시간		0:01 ***	0:02 ***	0:02 ***	0:02 ***	1:45	1:29	2:09	1:26
수입 노동 시간	학업	8:23 ***	11:02 ***	8:16 ***	11:04 ***	3:22	3:55	3:19	4:10
	노동	0:00	0:00 **	0:00	0:00 *	0:01	1:08	0:30	1:27
	이동	0:46 ***	0:59 ***	0:47 ***	1:03 ***	0:07	0:24	0:20	0:14
소계		9:09 ***	12:02 ***	9:03 ***	12:07 ***	3:30	5:27	4:09	5:51
사회·문화적시간		2:59 ***	1:34 ***	3:08 ***	1:41 ***	6:23	7:19	5:59	5:27
기타시간		-	-	-	-	0:56	0:12	0:22	1:08
계		24:00	24:00	24:00	24:00	23:57	23:58	23:58	23:57

*p<.05 **p<.01 ***p<.001

수면 및 휴식과는 반대로 식사시간은 한국 자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다. 한국의 자녀들은 네 집단 모두 평일 하루평균 100분 이상을 식사에 사용하는 데 비하여 미국 학생의 경우 네 집단 모두 1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인의 식사시간은 긴 편이고 미국인은 식사시간이 짧은 특징이 밝

혀진 바 있는데(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 1995, 통계청, 2001), 자녀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인다.

수면 및 휴식과 식사로 구성된 생리적 시간 전체를 보면 양국이 소영역별로 반대의 시간배분 경향을 보임에 따라 각각의 효과가 상쇄되어 전반적으로 볼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은 양국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학생의 경우 집단에 따라 평균 1~2분에 불과하나 미국 학생의 경우 평일평균 1시간 26분~2시간 9분을 보이고 있다. 미국 11개주의 도시와 농촌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청소년의 일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11분이고(Lawrence & Tasker, 1983), 우리 나라 학생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14분으로 밝혀진 점(통계청, 2000)도 한·미 양국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입노동시간을 학업, 노동, 이동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학업의 경우 네 집단 모두에서 우리 나라 학생의 학업시간이 2.5~3.5배 많다. 미국 학생의 경우 평일 평균 3시간 19분(여자 초등학생)에서 4시간 10분(여자 중·고등학생)까지의 분포를 보이는데 비하여 한국 학생의 경우 8시간 16분(여자 초등학생)에서 11시간 4분(여자 중·고등학생)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각국 내에서 집단별 시간을 비교하면 여자 초등학생의 학업시간이 가장 짧고 여자 중·고등학생의 시간이 가장 긴 점은 양국에서 동일하나 국내에서의 집단별 시간량의 차이는 많지 않은 편이다.

유급의 노동시간을 보면, 한국 학생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하여 미국 학생의 경우 가장 적은 남자 초등학생이 1분이고 가장 많은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1시간 27분이나 된다.

이동시간의 경우 우리 나라 학생은 집단별 평균이 46분~1시간 3분인데 비하여 미국 학생은 7~24분으로 모든 집단에서 우리 나라 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이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지역의 차이 및 각국의 교통제도, 취학거리 및 학원수강 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학업, 노동, 이동을 종합해 전체 수입노동시간으로 묶어 보면, 미국 학생의 경우 노동시간이 한국 학생보다 유의하게 많은 경향이 있지만, 한국 학생의 경우 학업과 이동시간이 매우 큰 차이로 더 많기 때문에 전체 수입노동시간은 한국 학생이 더 많다.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체 수입노동시간과 반대로 미국 학생이 더 많고, 그 차이는 1.9

배(여자 초등학생)~4.7배(남자 중·고등학생)이다. 한국 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은 남자 중·고등학생으로서 평일 평균 1시간 34분이고, 가장 많은 남자 초등학생도 하루 평균 3시간이 되지 않는데 비하여 미국 학생의 경우 가장 적은 여자 중·고등학생도 5시간 27분이며 가장 많은 남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7시간 19분이다. 한국 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이 많은 초등학생도 학업시간에 비하여 36~38%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이 학업시간의 14~15%에 불과하나 미국 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이 학업시간에 비하여 1.3배 이상 더 많으며 남학생의 경우 약 2배가 된다.

V. 결론

한국과 미국 가족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이 나타났다. 한미 양국의 시간비교를 통해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영역 중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으로 미국 남편은 한국 남편보다 훨씬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이는 한국 남편의 의식구조 속에 가부장적인 사고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가사노동시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전일주부의 남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부부간에 가사노동이 대체적인 양상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보다 전일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부부간에 가사노동이 보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부부간 가사노동수행이, 한국은 부인의 취업이라는 상황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미국은 부인이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남편도 집안 일을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부부관계의 속성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미국 부부간에 식사시간의 차이가 크며 생리적 시간의 차이는 식사시간의 차이에 근거한다. 식사시간의 차이는 양국의 식생활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의 식사시간이 생각 외로 짧게 나타난 것은 식사시간을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할 경우 이를 식사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즉 시간 분류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식사시간의 차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입노동시간이 한국의 남편과 취업주부 모두에게서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근로자의 장시간노동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은 남편 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현저하다. 한국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이 미국의 취업주부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동시간에 있어서 한국의 부부가 미국보다 긴 것은 도시의 크기와 교통 혼잡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넷째,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부부가 미국보다 적게 나타나 한국 부부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 욕구 충족의 기회가 뒤떨어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보편화되어 있는 주5일제근무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풍부한 여가시설 및 설비가 사회문화적 활동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전일제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제약을 자신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희생함으로써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전일제취업부부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사회문화적 시간에 차이가 없어 부부 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자녀의 생활시간에 있어서도 양국간에 큰 차이를 보여 양국의 자녀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방식의 차이는 양국간의 생활습성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연령별 차이 역시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의 자녀는 학업시간과 이동시간이 많아 한국의 교육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집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여가시간도 아주 적은, 생활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자녀들은 학업에 보내는 시간이 적고 그 대신 가사노동이나 수입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사회문화적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학업, 노동, 여가가 비교적 균형을 이룬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 자녀들의 적은 학업시간은 하루 평균 학업시간이 적은 데 기인하지만 그 외에 home study 등으로 인해 학교를 쉬는 날이 많은 데도 기인한다.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간을 조화롭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학업중심의 생활을 지양하고 그 시간을 생활의 다른 영역, 즉 가사노동이나 사회 문화적 활동에 보다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미 양국 가족은 생활습성과 생활규범, 가치관, 환경조건 등의 차이

로 인해 상이한 생활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양국간의 시간 차이가 실제의 생활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표집에 의한 오차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표집한 지역의 크기가 다르고 특히 미국의 표집지역은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식사시간 등에서 보듯이 조사방법이나 시간범주 구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시간의 차이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간조사를 토대로 비교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국가 수준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를 요한다. 앞으로 표집지역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거나 또는 표집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해서 시간조사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사방법, 조사대상, 생활시간분류 등을 동일하게 한 조사를 양국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시간배분상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양국간의 역사적 배경이나 전통이 생활시간배분에 주는 영향력의 크기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선진대국인 미국과의 시간비교를 통해 나타난 한국 가족의 생활시간상의 문제점으로는 남녀역할분담의 고정화, 취업한 남성과 여성의 장시간노동,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학업편중의 불균형한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 가족원들의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생활 영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개별 가족적 차원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노동정책, 교육정책, 청소년정책, 교통정책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희(1996). 아동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고신대아동연구 5, pp.40-52.
- 도종수 정문성(1993).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 pp.64-79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2001).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서울 : 통계청.
- 이정덕(1991).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변화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 pp.

203-221

- 조희금·이기영·이연숙·김외숙(2000). 한일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6, pp.1-14.
- Amano et al.(1998). Comparative Analysis of Time Use in Seoul and Tokyo-Social/Cultural Activity Time, Th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5(1), pp. 22~27.
- Douthitt, R. A.(1991), “Children’s time use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 Does household organization matter?”, HERJ 20(1), pp. 40-51.
- Lawrence, F. C., & Tasker, G. E.(1983). Time spent in housework by urban adolesc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pp. 199-207.
- Lawrence, F. C., & Tasker, G. E.(1988). Rural-urban differentials in children’s household production ti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pp. 39-47.
- Matsubajuchi, R., Amano, H., Amano, H., Horiuchi, K., Ito, S., Saito, E., Ito, J., Mizunoya, T.(1997). Comparative analysis of time use in Seoul and Tokyo(1995) - Paid work time, 1997 Proceedings of the 9th Conference of ARAHE.
- Pentland et al., 1999, Time Us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Sanik, M. M., & Stafford, K.(1986). Boy/girl differences in household 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pp. 209-219.
- Szalai(1972). The use of time -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Mouton.